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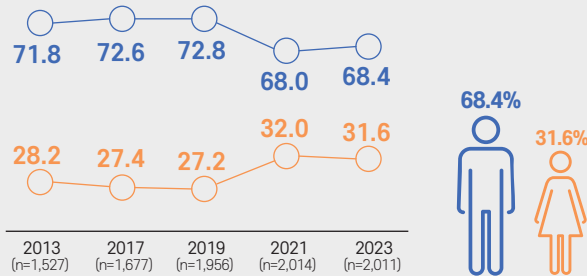
2023년 한국의 언론인은 어떤 모습일까?



성별 분포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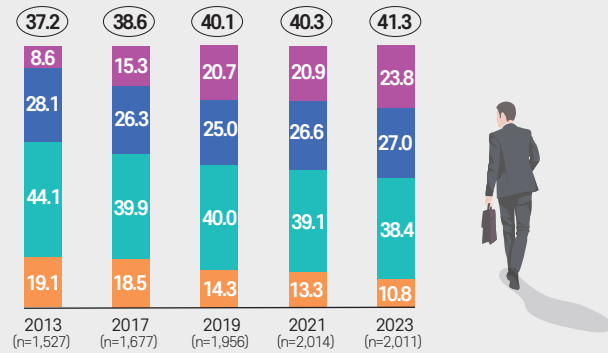
2023 언론인 조사 결과 응답자 성별 분포는 남성 **68.4%**, 여성 **31.6%**로 나타났다.



연령 분포

(단위: %, 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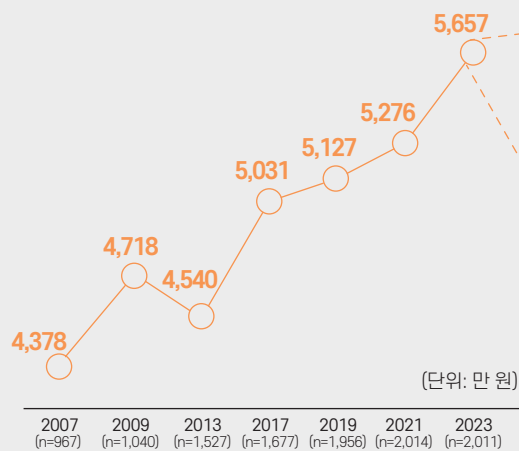
2023 언론인 조사 결과 응답자 연령별 분포는 **20대(10.8%)**, **30대(38.4%)**, **40대(27.0%)**, **50대 이상(23.8%)** 순으로 나타났다. 평균 연령은 41.3세로 직전 조사보다 **1.0세** 증가했다.



평균 연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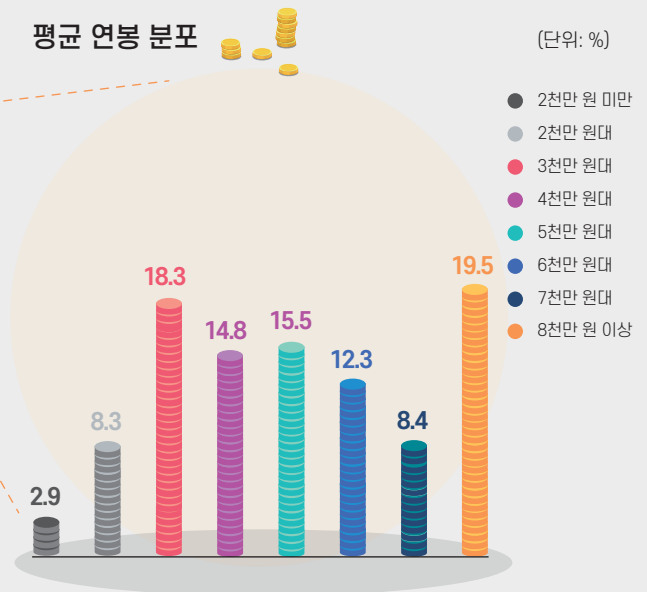
2023 언론인 조사 결과 응답자 평균 연봉은 **5,657만 원**으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**381만 원** 증가했다.

평균 연봉 추이



평균 연봉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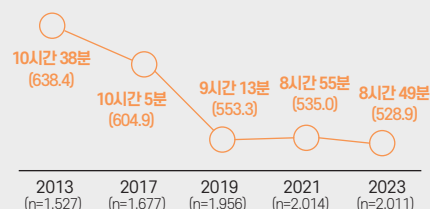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근무 시간

2023 언론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**8시간 49분(528.9분)**으로 나타났다. 직전 조사보다 **6분** 감소했다.

(단위: 분)



일주일 평균 기사작성 건수



신문사
20.0건



인터넷 언론사
25.8건



뉴스 통신사
39.0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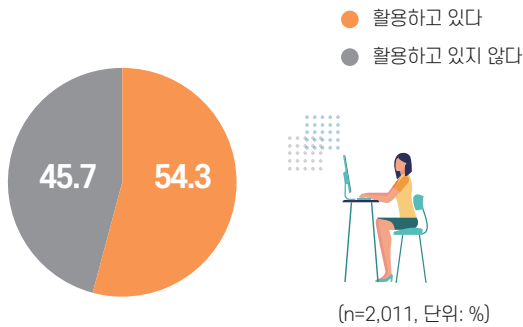


언론인이 바라본 생성 A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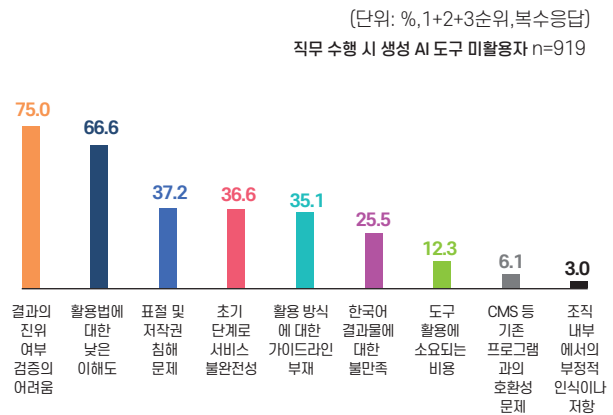
직무 수행 시 생성 AI 도구 활용 여부

전체 응답자의 **54.3%**는 직무 수행 시 생성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,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**45.7%**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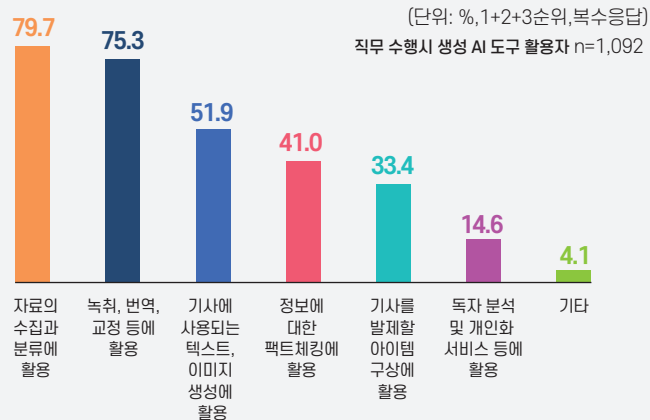
생성 AI 도구 미활용 이유

생성 AI 도구 미활용자의 **75.0%**는 '결과의 진위 여부 검증의 어려움'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답했다.



생성 AI 도구 활용 분야

직무 수행 시 생성 AI 도구를 활용한다는 응답자의 **79.7%**는 '자료의 수집과 분류에 활용'하고 있다고 답했다.



생성 AI 도구가 크게 활용될 분야는
'자료 수집과 분류'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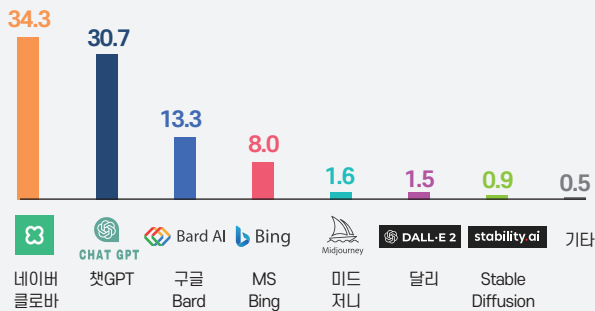
인공지능 AI



직무 수행 시 생성 AI 도구 활용률

‘네이버 클로바’는 생성 AI 도구 중 직무 수행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로 나타났다(34.3%). 다음으로 ‘ChatGPT(챗GPT)’(30.7%), ‘구글 Bard(바드)’(13.3%), ‘MS Bing’(8.0%) 등의 순으로 활용률이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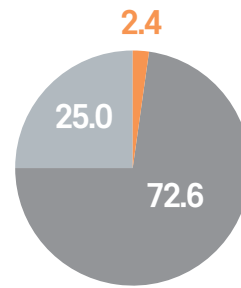
(n=2,011, 단위: %, 복수응답)



소속 언론사의 생성 AI 도구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유 여부

소속 언론사가 생성 AI 도구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.4%에 불과했다.

(n=2,011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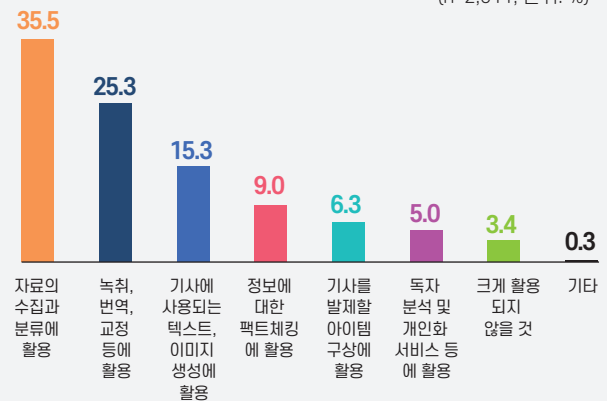


- 보유하고 있다
- 잘 모르겠다
- 보유하고 있지 않다

향후 생성 AI 도구가 크게 활용될 분야

향후 생성 AI 도구가 크게 활용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5.5%는 ‘자료의 수집과 분류’에 가장 크게 활용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.

(n=2,011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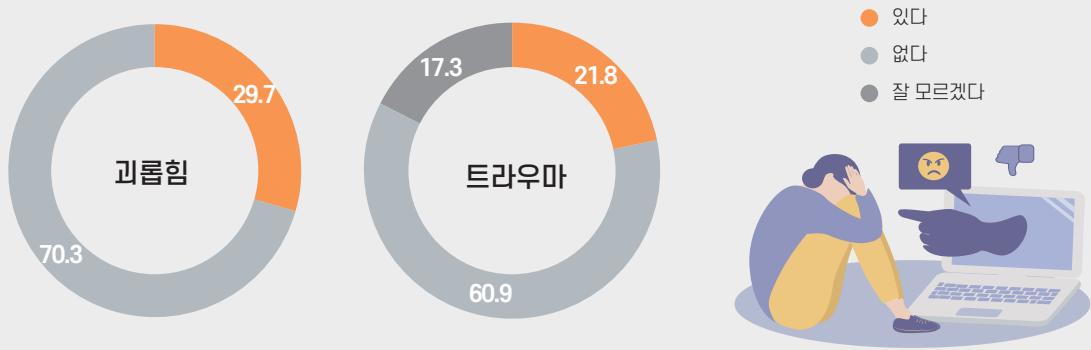


언론인이 경험한 괴롭힘 및 트라우마

지난 1년간 취재, 보도로 인한 괴롭힘과 트라우마 경험 여부

(n=2,011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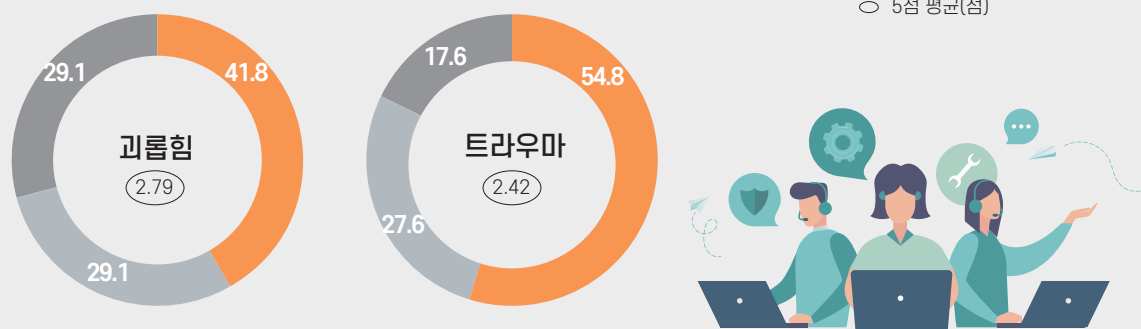
지난 1년 동안 취재, 보도 과정에서 언론인 괴롭힘 경험자는 전체 응답자의 29.7%였고, 트라우마 경험자는 21.8%였다.



괴롭힘과 트라우마에 대한 소속 언론사 도움 정도

(단위: %) 괴롭힘 경험자 n=598, 트라우마 경험자 n=438

지난 1년간 취재, 보도로 인한 괴롭힘 경험자 중 41.8%, 트라우마 경험자의 54.8%는 소속 언론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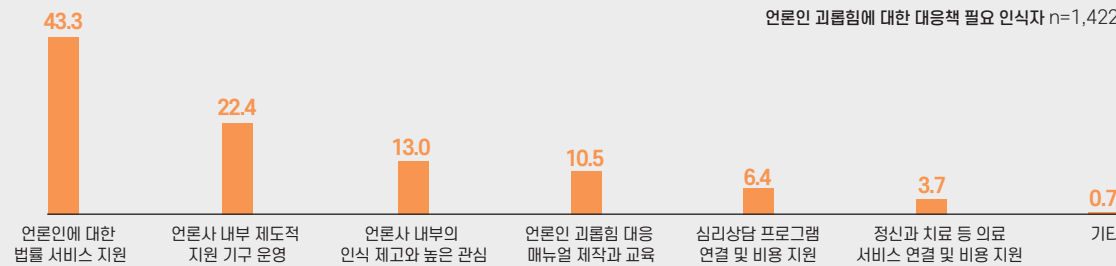


취재, 보도로 인한 언론인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

취재, 보도로 인한 언론인 괴롭힘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43.3%는 '언론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'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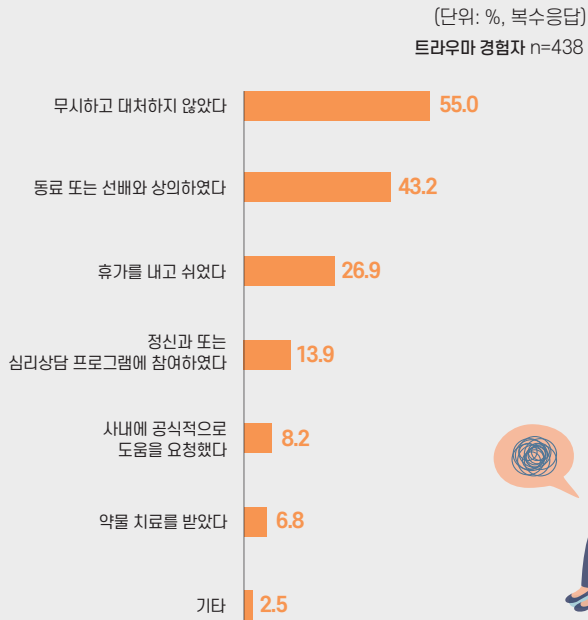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언론인 괴롭힘에 대한 대응책 필요 인식자 n=1,42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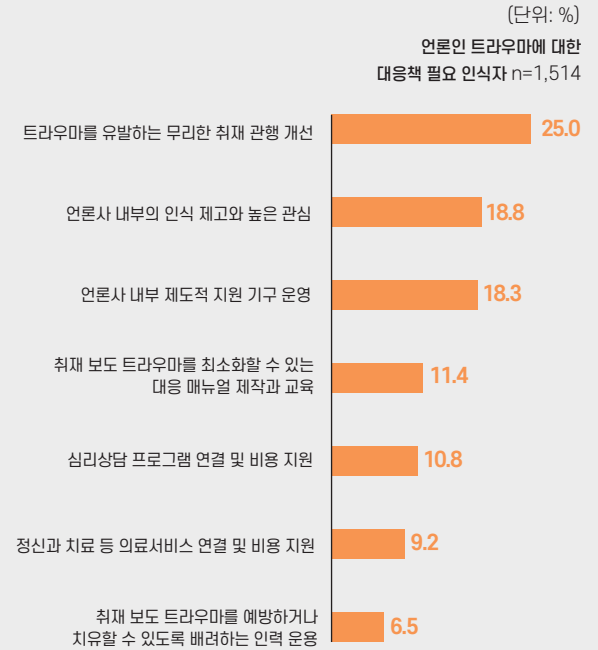
취재,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대처방식

지난 1년간 취재,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경험자 중 **55.0%**는 '무시하고 대처하지 않았다'고 답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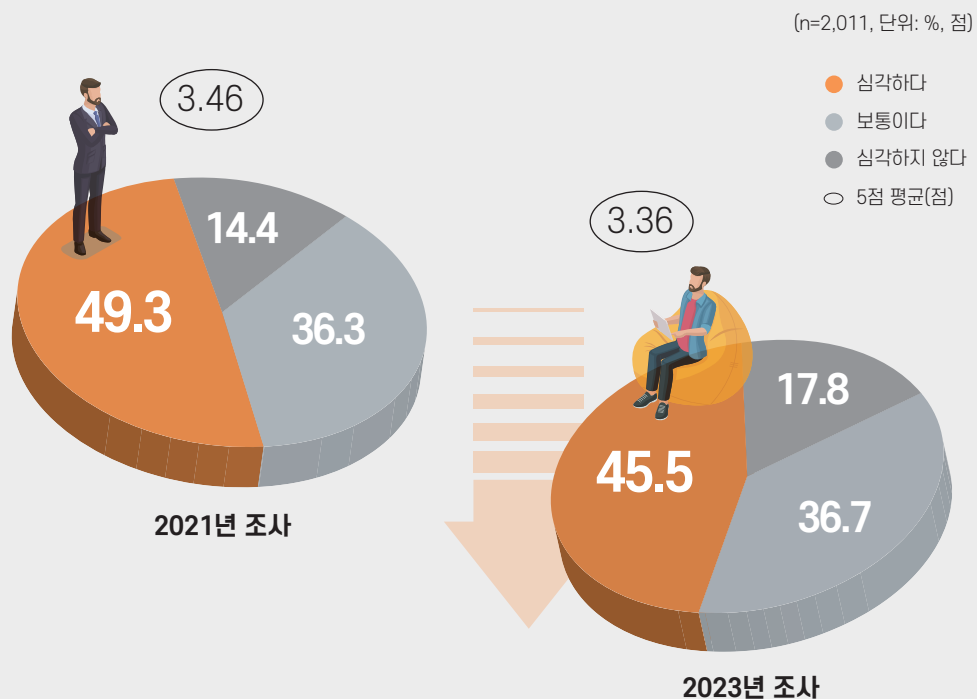
취재, 보도 트라우마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

취재, 보도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**25.0%**는 '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무리한 취재 관행 개선'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.



우리나라 언론 전반 언론인 괴롭힘 심각성 평가

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**45.5%**는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. 직전 조사 대비 심각하다는 인식은 **3.8%p** 감소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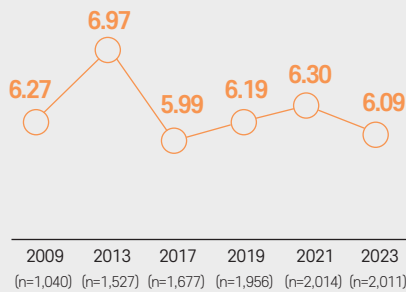


언론인의 직업 만족도

언론인 직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

2023 언론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느끼는 직업의 만족도는 **6.09점**(10점 평균)으로 나타났다. 직전 조사 대비 **0.21점** 하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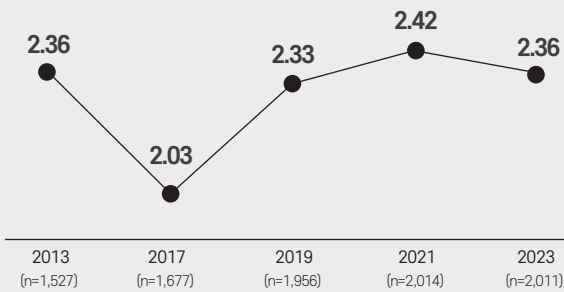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점, 10점 평균)



편집·보도국 내 기자의 사기 변화

편집·보도국 내 기자의 사기 변화를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**2.36점**으로 직전 조사 대비 **0.06점** 하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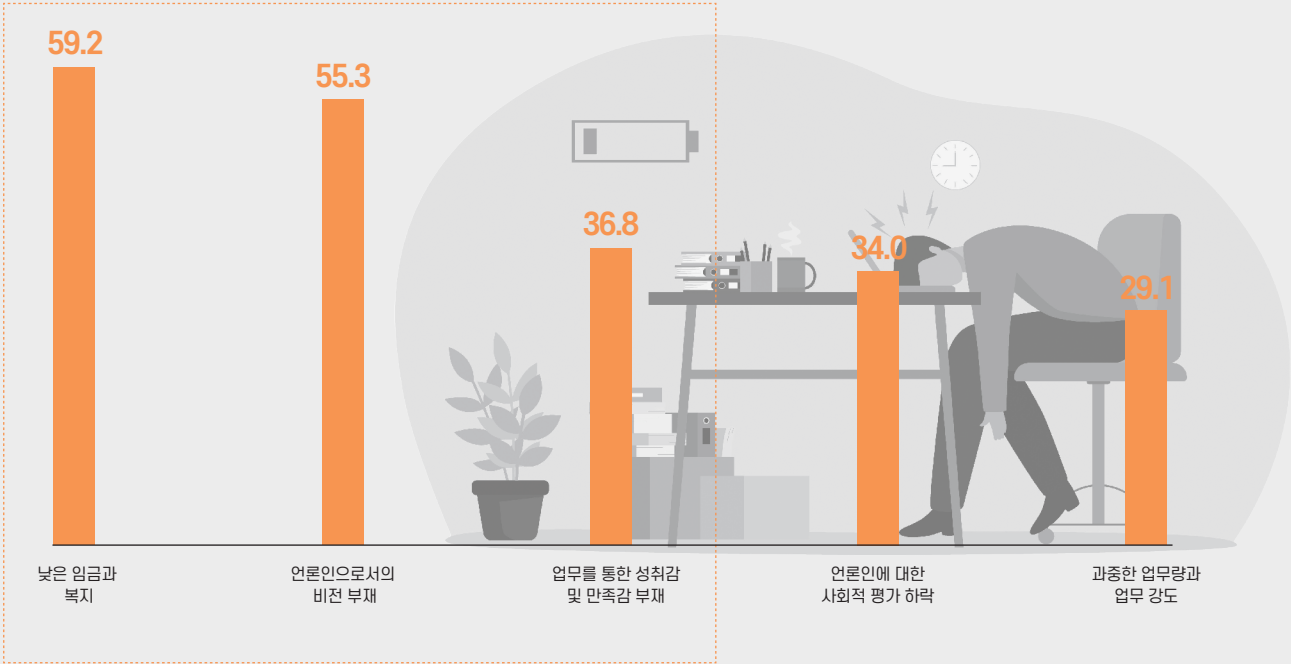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점, 5점 평균)



편집·보도국 내 기자의 사기 저하 원인

(단위: %, 복수응답)
사기 저하했다고 응답한 기자 n=1,252

2023 언론인 조사 결과 편집·보도국 내 기자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**‘낮은 임금과 복지’(59.2%)**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. 이어 **‘언론인으로서의 비전 부재’(55.3%)**, **‘업무를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’(36.8%)** 등으로 나타났다.



* 인포그래픽 이미지 출처: shutterstock